

양키스 잡으면 '사이영상 9부 능선'

NY 양키스, 팀 득점 1위·팀 홈런 2위 '최강의 적'
WS 홈 어드밴티지 경쟁...자존심 건 '올인 전쟁'
MLB닷컴 "류현진 올 겨울 몸값 폭등할 것" 극찬

미리 보는 월드시리즈로 부르기 손색없는 매치업. 류현진(32·LA 다저스)이 선봉에 선다.

다저스는 24일(한국시간)부터 홈구장 다저스타디움에서 뉴욕 양키스와 '2019 메이저리그(ML)' 인터리그 3연전을 치른다. 두 팀은 아메리칸리그(AL)와 내셔널리그(NL)의 승률 1위 팀이다. 22일까지 다저스는 84승44패(승률 0.656), 양키스는 83승45패(승률 0.648)로 각 리그 압도적 1위를 유지 중이다. 물론 정규시즌 승률 1위 팀들끼리 월드시리즈에서 맞붙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강한 두 팀의 '빅뱅'인 것만은 분명하다. 아울러 월드시리즈 홈 어드밴티지는 두 팀 중 승률이 높은 쪽에게 주어진다. 이를 위해서라도 몰라낼 수 없는 일정이다.

실리, 자존심 모두를 위해 중요한 승부. 그 첫 경기 선발투수로 류현진이 나선다. 류현진은 올 시즌 23경기에 등판해 12승3패, 평균자책점(EERA) 1.64를 기록 중이다. 여전히 ML 전체 유일한 1점대 EERA 투수이며 NL 사이영상 1순위 후보로 꼽힌다. 비록 직전 애틀랜타전(5.20일 4실점)에서 자존심을 구겼지만 '두 번 실수는 없다'는 각오다.

류현진과 맞설 양키스 타선은 결코 만만치 않다. 팀 타율과 OPS(출루율+장타율) 모두 ML 전체 3위에 올라있으며 팀 득점은 1위, 팀 홈런은 2위다. 한두 명의 압도적인 타자가 공격을 주도하는 게 아닌, 타선 전체의 힘이 강해 더욱 무섭다. 클레이버 토레스, 개리 산체스, DJ 르메이휴 등 강타자들의 한 방을 조심해야 한다.

이번 고비를 지나간다면 NL 사이영상의 8부 능선을 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현지 언론에서는 류현진의 대판을 점치고 있다. CBS스포츠는 22일 "류현진이 현 시점에서는 만장일치로 NL 사이영상을 수상할 것"이라고 칭찬했다. MLB닷컴은 "류현진이 프리에이전트(FA) 시장을 흔들 것"이라고 점쳤다. 이 매체는 "올 겨울 류현진의 몸값이 폭등할 것이다. 100마일(약 161km)의 속구가 없더라도 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고 극찬했다. 현지에서도 과묵 같은 활약을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 미리 보는 월드시리즈에서 확실한 눈도장을 찍을 필요가 있다.

최익재 기자 ing17@donga.com

▶LA 다저스 류현진이 24일(한국시간)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뉴욕 양키스와의 '미리 보는 월드시리즈'에 선발 등판한다. 양대 리그 승률 1위 팀간 맞대결서 팀의 우위를 이끈다면 류현진 역시 사이영상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사진 | AP뉴시스



내가 왜 떴게?

평생 업고 다녀야



최민수·강주은

●강주은, 심경고백 : 보복운전 혐의로 징역 1년 구형을 받은 배우 최민수의 아내 강주은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심경을 털어

냈다. "쌍둥이, 남매 같이 산 게 10년"으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썼다. "이런저런 이유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만들어 오면서 부부가 많은 노력과 경험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결론은 우리 민수는 내가 있어서 너무 너무 좋겠다"라고 글을 맺었다. 오래 산 부부들은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부부가 함께 했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경험담을 자주 들려주곤 합니다. 최민수씨, 다리 운동 많이 하셔야겠어요. 평생 강주은씨 업고 다니시려면.

사랑이 새긴 복근



강남

●강남, 다이어트 변신 : 사진만 보고 변신 로봇인 줄. 가수 강남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다이어트 전후 비교 사진이다. 축 처진 가슴과 배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달라졌다. 허리가 쏙 들어가고 복근까지 생겼다. 무려 15kg을 감량했다고 한다. 강남은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스피드스케이팅 스타 이상화와 공개 연애 중. 사랑의 힘은 이렇게 복근도 만들어준다.

10년 저녁금식 수행(?)



50대 오현경(왼쪽)과 20대 오현경

●오현경, 동안비결 : 방송에 출연한 배우 오현경이 50대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동안을 과시했다. 강호동이 "내 친구 현경이는 50대가 됐는데도 예전과 변함이 없다"며 혀를 내둘렀다. "10년 동안 저녁을 안 먹었다는 것이 사실이나"는 질문에 오현경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저녁 금식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한다"며 인정했다. 10년 저녁 금식이라니. 저녁은 원래 초저녁과 한밤중, 두 번 먹는 거 아닌가요?

편집 | 안도영 기자 do2@donga.com

족쇄 풀린 손흥민, 첫 상대가 기성용?

지난 시즌 출장정지...1,2R 못뛰어
26일 EPL 3R 뉴캐슬과 안방 빅뱅

가장 긴 시즌을 보냈던 손흥민(27·토트넘 홋스퍼)이 가장 늦은 시즌을 시작한다.

드디어 족쇄가 풀렸다. 손흥민은 26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릴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2019~2020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홈 3라운드 출격을 앞두고 있다.

지난 시즌 37라운드 본머스전에서 거친 플레이로 퇴장을 당한 손흥민에게 EPL 사무국은 3경기 출전정지를 처분했고, 이에 지난 시즌 최종전을 건너뛰었다. 그럼에도 그 누구보다 가장 긴 시즌을 소화했다. 소속 팀이 리버풀(잉글랜드)과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맞서면서다.

다시 시작된 새 시즌, 손흥민은 징계가 이어진 리그 1·2라운드를 뛸 수 없었다. 뉴캐슬전에서 진짜 시즌의 시작을 알리는 셈. 분위기는 좋다. 영국 매체들은 22일을 기점으로 "토트넘이 휴식을 끝낸 특급 공격수를 얻게 됐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놓으며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

에스턴 빌라(홈)~맨체스터 시티(원정)로 이어진 리그 개막 이후 두 경기에서 1승 1무를 챙기며 순탄한 출발을 알린 토트넘이지만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파괴적이지



손흥민

않다는 것이 현지 전문가들과 언론의 반응이다.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는 전천후 공격수의 등장이 반가울 수 밖에 없다. 토트넘은 4라운드에서 아스널과 '북런던 더비'를 앞두고 있어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으로서 손흥민을 아껴두기 어려운 처지다.

더욱이 뉴캐슬에는 국가대표 선배 기성용이 몸담고 있어 '코리안 더비'의 성사에 시선이 쏠린다. 개막전을 뛰지 않은 기성용은 노리치 시티와 2라운드에선 선발 출격했다.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5번째 시즌을 맞이한 손흥민은 차범근 전 감독이 보유한 기록(121골)을 넘어 역대 한국 선수 유럽무대 최다 골을 노린다. 독일(함부르크)SV, 바이엘 레버쿠젠)과 잉글랜드에서 116골을 기록한 그는 6골만 추가하면 또 다른 영웅을 얻게 된다.

남창현 기자 yoshike3@donga.com

일본 안방극장 강타한 '한국드라마의 힘'

탄탄한 스토리 구성과 콘텐츠의 힘
싸인 4위·보이스 5위·투윅스 10위
양국관계 악화에도 리메이크작 인기

한국드라마가 탄탄한 구성 등 콘텐츠의 힘을 내세워 일본 시청자까지 사로잡고 있다.

최근 일본 시청률 조사기관 비디오 리서치는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 시청률 순위를 공개해 시선을 끌었다.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 리메이크한 한국드라마 '싸인' '보이스' '투윅스' 3편이 모두 10위권에 진입했다. 한국드라마가 같은 시기에 3편이나 방송하는 이례적인 상황과 한일 관계의 악화 속에서 성과를 거둬 더욱 더 눈길을 사로잡는다.

이번 조사는 평균 12부작으로 제작하는 드라마가 반환점을 돌며 집계한 만큼 최종 성패를 예상하는 중간 점검의 의미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일본 드라마 시장도 시청률이 저조하면 편성 시간대를 폐지할 만큼 한국 못지않게 시청률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로 '싸인'이 4위로 꼽혔다. 아사히TV가 방송하는 '싸인-법의학자 유즈키 타카시의 사건'은 2011년 한국에서 박신양과 김아중이 주연한 '싸인'을 원작이다. 7월11일 첫



싸인

방송해 5회까지 평균 11.1%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최근 5년간 일본에서 리메이크한 한국드라마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어 5위에는 '보이스'가 올랐다. 2017년 케이블채널 OCN에서 방송한 '보이스'를 원작으로, 일본TV에서는 '보이스 110긴급지령실'이라는 제목으로 시청자와 만나고 있다. 6회까지 평균 10.7%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보이스'는 시즌3까지 제작될 만큼 국내에서도 상당한 팬을 보유하고 있다.

마지막은 '투윅스'가 10위를 장식했다. 2013년 이준기가 주연한 동명의 드라마로 후지TV가 방송 중이다. 5회까지 시청률 6.5%를 기록했다. 드라마 주인공으로 현지에서 인기 높은 스타를 내세운 것과 비교하면 시청률 면에서는 큰 효과는 얻지 못했다. 벅슬미 기자 bsm@donga.com